

'강한 경제 전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

우범기 시장, 제22대 국회 개원 맞춰 국회 방문... 국회의원·정당 의원들 만나 지원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12일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각 정당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 주요 사업들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된 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구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산비문화수련원 건립' △드론축구 중추국 위상 강화를 위한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 15개 사업이다.

특히 우 시장은 이날 이성운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12일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각 정당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에게 10만 건 규모의 효과 음원 구축으로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탱 구축'과 서남권 대표 제3의 영상거점도시 완성을 위한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의 국회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3선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에게는 완주만경강 중류 신천습지와 백석저수지 생태 경관의 보전·복원을 통해 도심 속 생태문화체험공간을 만드는 '백석철새탐방로 조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이춘석 국토교

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에게는 광역도시 성장의 발판이 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전주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연결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기재부 예산심사가 끝나는 오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에 전주 발전을 위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주시 현안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까지 전북도,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기재부 설득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전주의 대변역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물결 구성된 주요사업 국회 상임위에 주요 사업을 사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최상'

'그린 스타디움' 선정... 12개 K리그1 구장 중 2위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관리하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잔디 관리가 가장 잘 된 K리그1 축구구장으로 뽑혔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제주의 홈구장 제주월드컵경기장, 대구의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 등 3개 K리그 축구구장을 2024년 상반기 '그린 스타디움'으로 선정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100점 만점에 87.3점으로 제주(87.7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K리그 잔디관리 컨설팅 파트너인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60%)와 경기 감독관(20%), 선수단(20%)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그린 스타디움을 선정한다.

그린 스타디움은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한 경기장 관리 주체에 주어지는 명예다. /김욱기 기자



총 12개 K리그 구장을 대상으로 잔디 발육 현황, 그라운드 평탄화, 라인, 배수 등의 항목을 꼼꼼히 평가한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생육 촉진과 밀도 유지, 잔디 뿌리뿌음 촉진에 대한 배토, 그라운드 내 통풍 및 습도 조절을 위한 대형 송풍기 기능을 통해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정주 월드컵운영부장은 "전북 현대 축구단 선수들이 안정된 경기력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치를 수 있도록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그린 스타디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역세권 '맛집창업운영관' 개소

주민공동체 거점시설... 상권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주민공동체의 거점시설인 '맛집창업운영관'이 문을 열었다.

시는 12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위치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 한 곳인 '맛집창업운영관'에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지역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세권 맛집창업운영관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주역세권 맛집창업운영관은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했

으며, 식당(1층)과 베이커리카페(1~2층)로 운영될 예정이다.

'맛집창업운영관'은 주민주도형 방식으로 첫마중길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맡는다.

시는 맛집창업운영관을 통해 첫마중길 일대가 전주시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주역세권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전주역세권을 비롯해 도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 운영사례 벤치마킹 △도내 도



시재생사업 관계자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맛집창업교육관'에 청년 외식창업가를 육성하는 전용공간인 '청년키움식당 전주점'을 문을 열고,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분금 없이 실제 창업 운영 기회를 제공해왔다.

김봉기 전주시 광역도시개발조정실장은 "오늘 맛집창업운영관 여는 날 행사가 전주 첫마중길이 다시 한번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곳이 청년과 문화, 사회적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활력 있는 삶터와 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어진 지 40여 년이 경과하면서 낡고 비좁은 전주역을 새단장하기 위해 현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전주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전주역 인근에 새로운 교통 중심지이자 동부권 관광의 거점이 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도 조성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평화동 장애인 거주자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전주시는 12일 평화동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건물 주차장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가 주관하고,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안전교육팀이 교육을 맡아 이뤄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자세 △소화기 사용 방법 △지진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현재 자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와 장애인 지원인력을 포



함한 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화재와 지진 등의 사고에 대비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사회로 자립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취급 다중이용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 분야에 대한 사전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위생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키즈카페와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여름철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수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식재료,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상태 점검

△냉동·냉장 제품 적정온도 유지 및 소비(유통)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 표시기준,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

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로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손 씻기 철저 △식재료 세척 시 수돗물 사용하기 △육류, 어패류, 채소류 갈·도마 구분 사용 △어패류·육류 익혀 먹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비 구슬땀

전주시 중화산1동(동장 김현도)과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철)는 지난 11일 위원 및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청소취약지를 돌며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강당재 주변을 돌며 불법투기된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

는 등 깨끗한 중화산1동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성철 주민자치위원장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